한국보육학회지 제18권 제2호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 Care
2018, Vol. 18, No. 2, pp. 117~127
http://dx.doi.org/10.21213/kjcec.2018.18.2.117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Mother's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

이 소 현[1)]
So Hyun Lee

본 연구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우울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형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3~5세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 203명이며, 우울증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한국판 유아행동평가 척도 부모용(K-CBCL)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하였고, 단계적 중다회귀(Stepwise Multi-Regression)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우울, 거부적, 통제적 양육행동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 유형별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우울이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거부적 양육행동이 추가적인 예측변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우울 감소 프로그램 및 거부적 양육행동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의 감소를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우울(Depression)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문제행동(Problem Behavior)

1) 경동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제1저자, 교신저자
(lsh@kduniv.ac.kr)

I. 서 론

유아의 문제행동이란 사회의 규범이나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유아의 부적응 행동으로서 유아의 놀이, 학습, 발달 뿐 아니라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강명희, 2000). 하지만 우리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영유아 교육기관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달센터나 치료센터 같은 기관 또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문제행동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영유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로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기는 언어, 사회, 정서, 인지, 신체 등에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또래친구, 교사 등을 통해 사회적인 기술을 익히며 사회성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도현심, 신나나, 박보경, 김민정, 김혜인, 2014; 박은혜, 2013). 하지만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유아의 공격적인 행동, 집중력 부족, 주의 산만 등의 문제행동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유아의 원만한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도현심, 신나나, 박보경, 김민정, 김혜인, 2014). 이러한 문제행동은 대부분의 정상 발달 유아의 경우에는 부모 및 교사의 지도로 행동수정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로 발현되기도 하며(김경숙, 2008), 청소년기까지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 볼 수 있다(Barnett, Melissa, Scaramella, & Laura, 2013; Campbell, Shaw, & Gilliom, 2000). 또한 문제행동은 표현 유무에 따라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으로 분류되는데, 미성숙한 유아의 경우 자기조절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정서 상태가 외현화 되기 쉽다는 특성을 가진다(Gilliom & Shaw, 2004). 이와 같이 유아의 문제행동은 유아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함께 외현화 되기 쉬운 특

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며, 내면화 문제행동은 스트레스를 공격적으로 표출하여 또래와의 사회적인 관계에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박윤조, 김성현, 2016). 따라서 유아기의 문제행동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적절한 시기와 방법의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는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인간이 태어나면 어머니로부터 생물학적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것을 지원받으며 성장하기 때문이다(조영삼, 2009). 우리나라 양육 현실에 있어서도 어머니는 주양육자로서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유아 연구에 있어서 어머니는 중요한 변수이다(이석호, 이주연, 2012). 한편 아동의 문제행동 관련 선행연구에 의하면 유아의 문제행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변인은 유아의 개인적인 기질과 어머니의 심리적 정서적 특성 중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공영숙, 임지영, 2012; 김연, 한태숙, 황혜정, 2004; 이영숙, 서소정, 2006; 이찬숙, 김경윤, 2008). 하지만 유아의 기질은 변화 가능한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행동의 해결을 위해 유아의 개인적인 기질은 바꿀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화 가능한 요인인 어머니 관련 요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의 여러 가지 변인 중 우울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도현심 외, 2014).

DSM-V에 의하면 우울이란 단순히 슬프거나 침울한 감정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활력 저하, 무가치감, 죄책감, 집중력 감소 등을 비롯해서 식욕 및 수면의 변화나 자살 충동 및 시도 등 정신적, 신체적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증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의 심리적 특성 중 우울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Elgar, Mills, McGrath, Waschbrusch, & Brownridge, 2007; Renk, Roddenberry, Oliveros, & Sieger, 2007). 그리고 양육행동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자녀의 성장 발달을 위해 그 사회의 문화적인 방식으로 가르치는 행동으로서 어떠한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는 교육관을 바탕으로 자녀를 대하는 행동양식이다(이원영, 1983). 따라서 양육행동에 포함되는 요인들은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애정, 수용, 온정, 자율과 같은 요인들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거부, 통제, 적대, 방임 등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육행동과 유아의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민감하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일 경우 아동은 긍정적인 사회적 능력과 함께 문제행동 또한 적게 나타났으며(김현미, 도현심, 2004; 김희수, 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거부적이고 통제적이면 아동은 욕구불만이나 부적응 행동이 많이 나타났다(김갑순, 박윤조, 2016; 이선영, 조민규, 2015; 차성혜, 도현심, 최미경, 2010). 또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방임적이고 허용적이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강기숙, 이경림, 2001),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행동에 직접적이고 일관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서 긍정적인 정서와 일관된 태도가 정상 어머니에 비해 부족하였고((김명숙, 오현숙, 2015; 김옥환, 2014; Foster, Garber, & Durlak, 2008),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의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박찬경, 강지현, 2013; 권수진, 오새니, 이상희, 2016; 김선희, 2001; 도현심 외, 2014; 이정윤, 장미경, 2009; Alpern & Lyons-Ruth, 1993, Brennan et al., 2000; Kim-Cohen, Moffitt, Taylor, Pawlby, & Caspi, 2005), 우울한 어머니와 정상 어머니의 자녀 행동에 관한 비교연구에서는 우울한 어머니의 자녀가 문제행동이 더 많은 걸로 나타났다(Dawson et al., 2003; Foster et al., 2008; Owens & Shaw, 2003). 또한 어머니의 우울이 심각한 수준일수록 양육행동은 덜 온정적·수용적이었으며, 더 거부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도현심 외, 2014), 어머니의 우울로 인한 부정적인 양육태도 또한 자녀의 문제행동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미경, 김명희, 2003).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의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문제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자녀 양육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양육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은 동반될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인데, 육아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있어서 우울은 그만큼

더 취약할 수 있을 것이다(강희경, 2015). 그래서 주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우울은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볼 수 있는데(이정윤, 장미경, 2009; Stewart, 2007), 이는 조민규, 김춘경(2015)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조민규, 김춘경, 2015). 그리고 이러한 어머니의 우울은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유아의 행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볼 수 있다(도현심 외, 2014; 조민규, 김춘경, 2015; Kim-Cohen et al.,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 양육행동, 유아의 내제적·외현적 문제행동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우울과 유형별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의 관계를 밝혀서 유아의 문제행동을 최소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행동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 하위영역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 하위영역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 250명과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의 설문지가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행동임을 밝히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에 한하여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250부였으며, 이 중 235부가 회수(회수율 94%)되었으며, 다중응답이나 무응답이 포함된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203부(81.2%)를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특 성	구 분	빈도(*n*)	백분율(%)
자녀성별	남아	112	55.2
	여아	91	44.8
자녀연령	3세	23	11.3
	4세	100	49.3
	5세	80	39.4
출생순위	첫째	118	58.1
	둘째	76	37.4
	셋째이상	9	4.4
어머니 연령	31세 이상 ~ 35세 이하	44	21.7
	36세 이상 ~ 40세 이하	105	51.7
	41세 이상 ~ 45세 이하	50	24.6
	46세 이상 ~ 50세 이하	4	2.0
가족만족도	매우만족	3	1.5
	만족	83	40.9
	그저 그렇다	110	54.2
	불만족	6	3.0
	매우 불만족	1	.5

2. 연구도구

1) 어머니의 우울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Beck(1967)이 개발한 우울증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이영호와 송종용(1991)에 의해 번안하고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진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BDI는 우울증의 증상을 바탕으로 우울증의 증상의 정도와 유형을 가늠하기 위하여 개발된 우울증상 척도이다. BDI검사는 Beck이 자신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1961년 제작한 자기보고식 도구로서 총 21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0~3점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0~3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각함을 나타낸다. 0~9점까지는 정상상태, 10~15점까지는 가벼운 우울증, 16~23점은 우울증, 24~36점은 중우울증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 .83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MBRI)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Schaefer(1959)의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를 번안하여 만든 이원영(1983)의 검사 도구를 수정·보완한 배문주(2005)의 질문지를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용한 검사도구는 애정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 양육행동을 제한하여 각 12문항씩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값은 .82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문항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어머니의 양육행동 문항구성

하위영역	문항수
애정적 행동	12
거부적 행동	12
자율적 행동	12
통제적 행동	12
총 계	48 문항

3) 유아의 문제행동(부모용)

유아의 문제행동은 Achenbach와 Rescola(2000)가 제작한 Child Behavior Checklist(CBCL) 1.5-5를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한국판 유아행동평가 척도 부모용(K-CBCL, 오경자, 김영아, 2009) 중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36문항과 주의 집중 문제와 공격행동의 외현화 문제 행동을 측정하는 2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K-CBCL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값은 내재화 문제행동은 .84, 외현화 문제행동은 .64으로 나타났다. 부모용 유아의 문제행동의 구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유아의 문제행동(K-CBCL, 부모용)

하위영역		문항수
내재화 문제행동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36
외현화 문제행동	주의 집중 문제 공격행동	24
총 계		60 문항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어머니의 우울,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비롯한 기술통계방법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Cronbach's α)을 실시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우울,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어머니의 우울,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Stepwise Multi-Regression)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어머니의 우울, 양육행동,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

어머니의 우울,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우울과 어머니의 애정적(r=-.214, p<.01), 거부적(r=.364, p<.01), 자율적(r=-.241, p<.01) 양육행동, 유아의 내재화(r=.342, p<.01), 외현화(r=.315, p<.01) 문제행동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우울은 거부적, 통제적 양육행동과 같이 부정적인 형태의 양육행동 그리고 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과는 정적상관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과 같이 긍정적 양육행동과는 부적상관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머니가 우울을 적게 인식할수록 애정적 혹은 자율적 양육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애정적(r=-.171, p<.05), 자율적(r=-.164, p<.05)양육행동은 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부적(r=.284, p<.01)양육행동은 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이거나 자율적인 경우 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이 낮게 인식되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거부적인 경우 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을 높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우울,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우울,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중다회귀 분석을 위한 과정 중의 하나로 다중공선성을 확인해 본 결과 VIF는 1.153으로 10이하였으며, 공차한계는 .868로 1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우울, 양육행동에 관한 단계적 회귀분석의 결과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적 양육행동이 전체변량의 13.7%(F=17.022, p<.001)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울이 전체 설명 변량의 11.3%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정적 예측변인으로(β=.276, p<.001)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거부적 양육행동이 추가됨으로서 2.4%의 영향력이 증가되었다. 거부적 양육행동 또한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정적 예측변인으로(β=.181, p<.05)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우울이 높을수록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높게 지각하며 추가적으로 거부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4.
어머니 우울,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N=203)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문제행동	
			애정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	내재화	외현화
어머니의 우울		1						
양육행동	애정적	-.214**	1					
	거부적	.364**	-.344**	1				
	자율적	-.241**	.668**	-.142*	1			
	통제적	.011	.246**	.370**	.303**	1		
유아의 문제행동	내재화	.342**	-.149*	.281**	-.105	-.043	1	
	외현화	.315**	-.171*	.284**	-.164*	0.037	.773**	1

*p<.05, **p<.01

표 5.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우울,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

(N=203)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R^2	ΔR^2	F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상수	-.035	.053		-.651			
	우울	.009	.002	.276	3.940***	.113	.024	17.022***
	거부적 양육행동	.056	.022	.181	2.575*	.137		

*p<.05, ***p<.001

표 6.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우울,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

(N=203)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R^2	ΔR^2	F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상수	-.066	.076		-.871			
	어머니의 우울	.011	.003	.243	3.443**	.095	.029	15.243***
	거부적 양육행동	.085	.031	.196	2.768**	.124		

**p<.01, ***p<.001

3.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우울,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우울,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중다회귀 분석을 위한 과정 중의 하나로 다중공선성을 확인해 본 결과 VIF는 1.153으로 10이하였으며, 공차한계는 .868로 1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적 양육행동이 전체변량의 12.4%(F=15.243, p<.001)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우울이 전체 설명 변량의 9.5%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정적 예측변인으로(β=.243, p<.01)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거부적 양육행동이 추가됨으로서 2.9%의 영향력이 증가되었다. 거부적 양육행동 또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정적 예측변인으로(β=.196, p<.01)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우울이 높을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높게 지각하며 추가적으로 거부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의 하위영역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피고, 유아의 문제행동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있다.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적, 통제적 양육행동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과는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권수진 외, 2016; 김선희, 2001; 도현심 외, 2014; 박찬경, 강지현, 2013; 연은모, 윤해옥, 최효식, 2016; 이정윤, 장미경, 2009; Alpern & Lyons-Ruth, 1993, Brennan et al., 2000; Kim-Cohen et al., 2005). 특히 자신의 우울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자신의 자녀에게 더 거부적이고 덜 수요적인 태도로 양육하며, 자신의 더 거부적이고 덜 수용적인 양육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다는 도현심 외(201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노인영(2012)의 학령기 아동 연구에서 어머니의 우울 수준에 따라 아동의 문제행동은 의미있는 차이와 함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어머니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뿐 아니라 우울과 부정적인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우울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내는데, 아버지의 우울 또한 부정적인 방법의 양육으로 이어져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여 우울은 양육행동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한다(송하나, 설희정, 2015; 장진영, 김진희, 김영희, 2011; 여종일, 2015). 따라서 어머니를 비롯한 양육자의 우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 유형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우울이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기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정신 건강 중 우울에 대한 중요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아의 문제행동의 개선을 위해서는 어머니를 비롯한 주양육자의 우울 또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기존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우울이 어머니의 생활에서 활력과 만족도 등을 감소시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일관되지 않은 양육행동으로까지 이어져 이는 결국 자녀의 부정적인 행동으로 파급되기도 하였다(Frank, Patrick, Daniel, Sherry, & Lori, 2004; 박찬경, 강지현, 2013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는 기존의 연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어머니의 우울을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강력한 예측변인임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거부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있어서 추가적인 예측변인으로 밝혀졌다. 거부적 양육행동 경우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또래배척, 반항적·적대적 행동, 정서표현 등 부정적인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권연희, 박경자, 2003; 정계숙, 이은하, 2003; 정지나, 김지현, 2011).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거부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유아 문제행동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바람직한 양육에 대한 부모교육의 필요함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유아의 문제행동의 해결을 위한 접근은 단순히 유아의 교육, 치료 등의 범위를 넘어 어머니를 비롯한 양육자를 포함한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어머니의 우울, 거부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예측변인이므로 어머니의 우울 감소 프로그램 및 거부적 양육행동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의 감소를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연구 대상을 제한한 연구이므로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없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려면 연구대상 선정을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질문지를 통해 조사한 자료를 통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심층면담,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한 심층적인 연구의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더 명확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의 질문지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어머니에 의해 작성된 경우, 응답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교육적인 방향으로 기록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어머니 뿐 아니라 교사, 아버지, 아동 자신 등 다양한 대상을 통한 조사로 보완이 필요다고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하지만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아버지, 교사, 형제, 또래친구 등 다양한 변인

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비교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강기숙 , 이경님(200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려성이 유아의 기제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2**(4), 115-132.

강명희(2000).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 아동, 교사 평가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희경(2015).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보육학회지**, **12**(1), 131-147.

공영숙, 임지영(2012).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 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인지적 실행기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2**(2), 351-375.

권수진, 오새니, 이상희(2016). 유아의 문제행동 관련변인 연구: 유아변인, 어머니변인, 또래관계변인.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4), 385-406.

권연희, 박경자(2003).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성, 대인간 문제 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 **아동학회지**, **24**(3), 27-44.

김갑순, 박윤조(2016).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6**(3), 27-44.

김경숙(2008). 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대처전략.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명숙, 오현숙(2015). 어머니의 기질과 우울 그리고 양육태도와 자녀 성격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4), 513-530.

김선희(2001).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우울성향 및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67-76.

김연, 한태숙, 황혜정(2004).『유아교육연구』의 연구동향 분석: 1994-2004. **유아교육연구**, **25**(3), 219-239.

김옥환(2014).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미, 도현심(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8-298.

김희수(2004). 부모의 양육태도 및 애착안정성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4**(2), 113-127.

노인영(2012). 어머니의 우울수준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 학교를 기반으로 한 고위험군 아동을 대상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도현심, 신나나, 박보경, 김민정, 김혜인(2014).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17**(1), 179-198.

박윤조, 김성현(2016). 유아의 자아존중감, 탄력성 및 문제행동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6**(4). 227-244.

박은혜(2013). **유아교사론**. 서울: 창지사.

박찬경, 강지현(2013). 어머니의 우울과 아동의 문제행동간 관계에서 어머니 정서표현성의 조절효과. **교육종합연구**, **11**(4), 1-22.

배문주(2005).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태도 일치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하나, 설희정(2015). 어머니와 아버지의 우울과 양육 행동이 유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8**, 154-154.

여종일(2015). 아버지의 우울증상 및 가족관계가 유아의 정서,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1**(3), 333-351.

연은모, 윤해옥, 최효식(2016). 부모의 우울, 지각된 가족기능, 양육태도,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6**(2), 243-269.

오경자, 김영아(2009). 한국판 CBCL 1.5-5의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28**(1). 117-136.

이석호, 이주연(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련변인 연구 : 양육행동의 하위영역별 비교. **한국보육학회지**, **12**(1), 111-130.

이선영, 조민규(2015). 어머니의 대모애착, 정신건강, 양육태도가 유아의 외현화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5**(4), 155-177.

이영숙, 서소정(2006). 유아의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 유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44**(5), 143-155.

이영호, 송종용(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10**(1), 98-113.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양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정윤, 장미경(2009).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의 관계 : 자녀양육관련 비합리적 사고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9**(2), 1-16.

이찬숙, 김경윤(2008). 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관련 변인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2), 161-184.

장진영, 김진희, 김영희(2011). 아버지의 우울과 부부관계 및 자녀양육방식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2**(2), 79-107.

정계숙, 이은하(2003).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로 인한 반항적/적대적 행동문제 유아의 놀이치료 사례연구. **유아교육논총**, **12**, 51-78.

정미경, 김명희(2003).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1**(8), 123-137.

정지나, 김지현(2011).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 유아의 공격성과 사회적 기술이 유아의 또래배척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0**(5), 983-992.

조영삼(2009).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민규, 김춘경(2015).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과 자귀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한국보육학회지**, **15**(2), 85-107.

차성혜, 도현심 , 최미경(2010).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아동의 정서지능의 매개적 역할. **아동학회지**, **31**(4), 125-137.

Achenbach, T. M., & Rescorla, K. A. (2000). Manual for ASEBA preschool Forms & Profiles.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rty.*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5th ed.(DSM-5). Washington, DC: Author.

Alpern, L., & Lyons-Ruth, K. (1993). Preschool children at social risk: Chronicity and timing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child behavior problems at school and at hom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3), 371-387.

Barnett, Melissa A., & Scaramella, Laura V. (2013). Mothers' parenting and child sex differences in behavior problems among African American preschoole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7*(5), 773-783.

Beck. A. T. (1967). *Depression: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Brennan, P. A., Hammen, C., Andersen, M. J., Bor, W., Najman, J. M., & Williams, G. M. (2000). Chronicity, severity, and timing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Relationships with child outcomes at age 5. *Developmental Psychology, 36*(6), 759-766.

Campbell, S. B., Shaw, D. S., & Gilliom, M. (2000). Early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oddlers and preschoolers at risk for later maladjust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 467-488.

Dawson, G., Ashman, S. B., Panagiotides, H., Hessl, D., Self, J., Yamada, E. (2003). Preschool outcomes of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Role of maternal behavior, contextual risk, and children's brain activity. *Child Development, 74*(4), 1158-1175.

Downey, G., & Coyne, J. C. (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An inter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8,* 50-76.

Elgar, F. J., Mills, R. S. L., McGrath, P. J., Waschbusch, D. A., & Brownridge, D. A. (2007). Maternal and p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child maladjustment: The mediating role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 943-955.

Frank J. E., Patrick J. M., Daniel A. W., Sherry H. S., & Lori J. C. (2004). Mutual influences on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adjustment problems. *clinical Psychoiogy Review, 24*(4), 441-459.

Foster, C. J. E., Garber, J., & Durlak, J. A. (2008).

Current and past maternal depression, maternal interaction behaviors, and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 527-537.

Gilliom, M., & Shaw, D. S. (2004). Codevelopment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2), 313-333.

Kim-Cohen, J., Moffitt, T. E., Taylor, A., Pawlby, S. J., & Caspi, A. (2005).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ren's antisocial behavio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2,* 173-181.

Owens, E. B., & Shaw, D. S. (2003). Predicting growth curves of externalizing behavior across the preschool yea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6), 575-590.

Renk, K., Roddenberry, A., Oliveros, A., & Sieger, K. (2007).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s of children to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Child & Family Behavior Therapy, 29,* 37-57.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235.

Stewart, R. C. (2007). Maternal depression and infant growth: A review of recent evidence. *Maternal and Child Nutrition, 3*(2), 94-107.

The Effect of Mother's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

So Hyun Lee
Professor,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yungdo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among mother's depression, parenting behavior of children's problem behavior. The subjects used in this study were 203 three to five-year-old children who attended kindergarten and deycare center in Seoul and Gyonggido. The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MBRI)', 'K-CBCL'. The data were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children's problem behavior, mother's depression, rejective and control parenting behavior. And there wer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among children's problem behavior, mother's affectionate and permissive parenting behavior. Also, the mother's depression was the predicted variable that has the most significant relative effect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 Moreo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rejective parenting behavior that is subordinate factor of parenting behavior was additional predictor of stress.

Received April 29, 2018
Revision received May 24, 2018
Accepted June 21, 2018